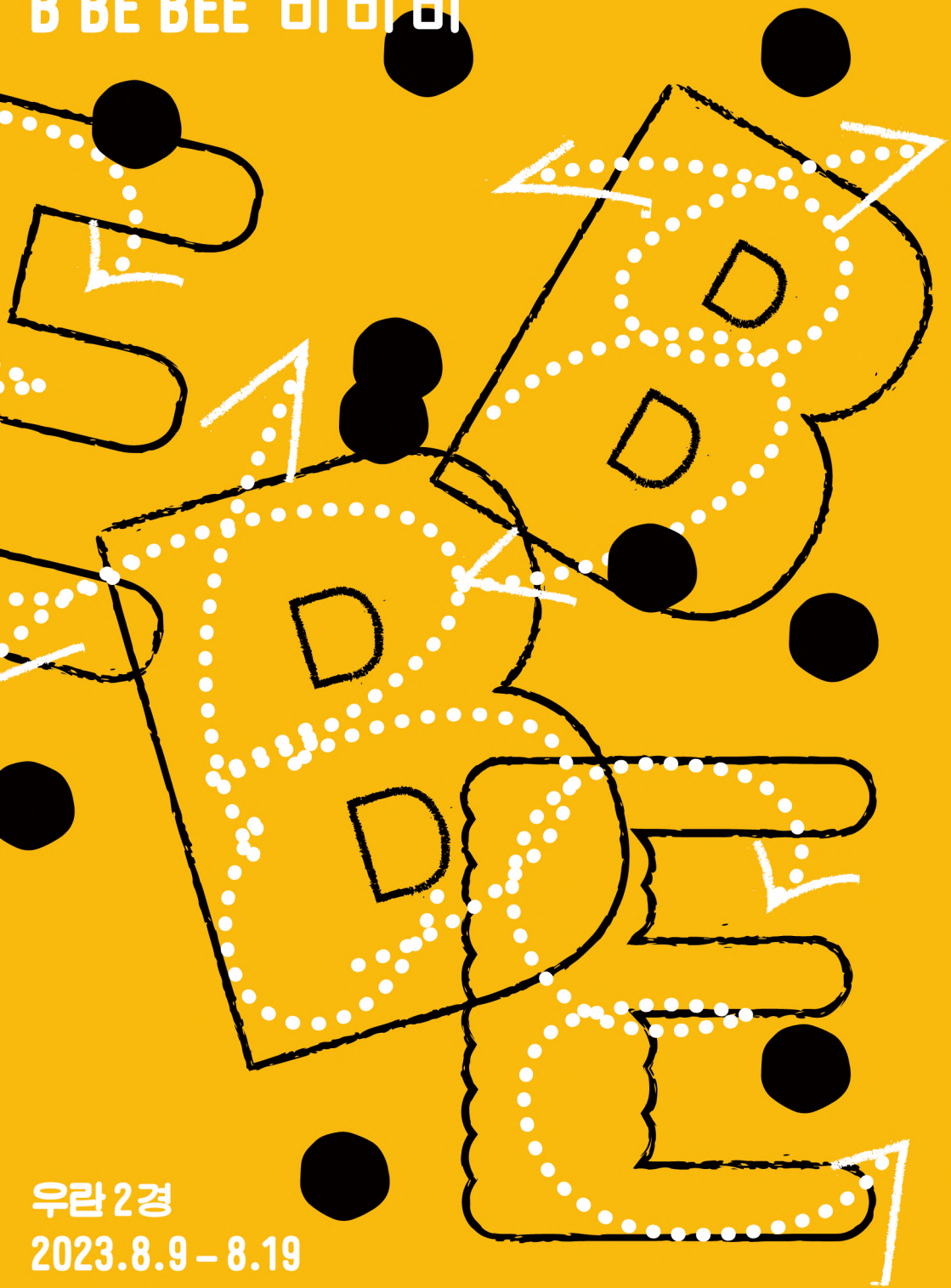


B BE BEE 비비비



우람 2경

2023.8.9 - 8.19

B BE BEE

비비비

우리 공연]

2023.08.09 WED -

2023.08.19 SAT

우란2경

장작·출연 심수연 드라미투르크 김순기
협력아티스트 권세미 류혜영
사운드킴 김진다자란 김형연
의상디자인 김미나 영상디자인 스튜디오 디워크

우란문화재단
WOORAN FOUNDATION



.....

작품소개

배우는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를 연기하기 위해 여러 기술을 연습한다.

그렇다면 오늘날, 인간 배우의 연기법은 ‘모든 존재’를 연기하기에 적합한가.
그렇다면 배우는 인간의 사고와 감각으로는 가닿을 수 없는 존재를 연기할 때
무엇을 근거로 무대에 올라야 하는가.

여기, 여러 비인간 존재들을 연기하던 한 인간 배우가 질문을 던진다.
‘인간 중심적’ 사고가 만들어낸 위기의 시대, 어떻게 하면 ‘인간 중심적’ 태도를
벗어나 배역을 연기할 수 있을까. 인간 배우는 끝없는 연기를 시도해 보면서,
이후의 세계를 살아가기 위한 연습을 극장으로 소환한다.

만드는 사람들

창작·출연 성수연

드라마투르크 김슬기

협력아티스트 권세미 류혜영

프로듀서 박예슬

제작PM 황만우

컴퍼니매니저 윤태영

장면연구개발 권세미 김슬기 류혜영 성수연

무대감독 서윤석 (암전 暗轉)

무대조감독 김현세

사운드 카입

음향감독 김여운

음향오퍼레이터 강수경

음향크루 김우람 박정근 원형빈

기술감독 전진

기술조감독 양수연 장지승

공간디자인 김형연

조명프로그래머 이호정

조명오퍼레이터 곽배주

조명팀장 김병희

조명크루 김대현 김송이 김재준 박병철

홍보PM 한주연

홍보진행 박소영

티켓매니지먼트 김민영

하우스 노소희 한수미

영상디자인

정현희·전효성·김인열 (스튜디오 디워크)

버추얼휴먼디자인 권세미

그래픽디자인 류가은

사진 김신중

영상 구춘모 (소보루필름)

의상디자인 김미나

의상크루 윤여담

의상·소품제작 안중순 백송이 (코스튬스토리)

자문 및 워크숍

배우 김정 우범진

시민과학자 조수정 (벌벌일있는사람들)

플라잉요가 추명지 (스튜디오성수)

분장디자인 장경숙

플라잉연출 프로젝트 날다·날다스튜디오

접근성매니저 김은정 김현지

수어통역 김홍남 정지현 (공인수어통번역 잘함)

문자통역 이시은 김학란 (소리를빛다)

창작진의 글

극장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 중, 연극하는 인간인 나에게 작용하는 요소는 아마도 그 안에서 공연 중인 연극, 그 연극의 내용이나 형식, 그곳에서 마주치는 어떤 사람을 정도일 것이다. 연극에 관심이 없는 인간에게는 그냥 화장실이 있는 건물일 것이다. 비인간 존재들에게는 어떤 곳일까. 동양하루살이에게 이 극장은 빛이 새어 나오는 틈새가 있는 콘크리트일까. 미세한 온도의 차이를 감각하여 마치 적외선 카메라처럼 주변을 인식한다는 뱀 관객에게는 암전이 전혀 의미 없겠네. 소리를 듣진 않지만, 진동각각이 발달했다는 꿀벌에게는 어떤 곳일까. 간헐적으로 어떤 진동이 느껴지지만 그 뿐, 직장도 집도 될 수 없는 어떤 곳? 연극은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보는, 참으로 인간적인 행위이다. 인간에게만 작용하는 이 행위 안에 비인간 존재들은 어떻게 위치할 수 있을까. 최초의 질문은 ‘인간 중심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비인간 역할을 연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였다. 이 연극을 만드는 동안 질문은 계속 모습을 바꾸었고, 답을, 아니 다음 질문을 찾는 과정에서 결국 나는 한동안 유보했던, 내 삶의 방향과 관련된 어떤 결정들을 내리게 되었다. 어떤 결정들은 공연에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말할 것이고, 그보다 많은 어떤 결정들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조심스레 벌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글 성수연 (창작·출연)

스토리텔링의 다양한 방식에 관심을 두고 있는 배우 겸 창작자다. 희곡 텍스트 연기, 직접 쓰고 연기하는 1인 창작작업, 공동창작작업 등 다양한 형태의 창작작업을 주로 하고 있다.

연극 <섬 이야기>, <앨리스 인 베드>, <로드킬 인 더 씨어터>, <우리는 농담이(아니)야>, <엑트리스 투: 악역전문로봇>, <엑트리스 원: 국민로봇배우 1호>, <로테르담>, <러브 스토리> 외

창작진의 글

무수한 질문들로부터 출발한 작업이었다. 무대 안과 밖에서 인간과 비인간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이때 배우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무대의 언어가 될 수 있을까. 그 과정을 통해 연극 무대에서 소외되었던 수많은 것들에 목소리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 연극은 어떻게 동시대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response-ability)을 구축할 수 있을까. 경이로운 순간을 맞이하고 싶었다. 도래한 위기보다는 도래한 가능성을 말해보려 했고, 매끄러운 것보다는 매끄럽지 않은 것을 기리려 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아름다운 이야기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연기를 하는 것도 인간이고, 그것을 함께 경험하는 것도 인간인데, 비인간을 연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극장을 찾을까. 세계에 대한 막연함, 불안함, 두려움, 불확실성과 손잡게 하는 매개로서의 연극, 질문을 이어 쓰는 과정으로서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

글 김슬기 (드라마투르그)

창작을 위한 읽기와 기록을 위한 쓰기를 한다. 공연예술의 창작과 수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가치에 주목한다. 일상과 연극, 연극과 사회가 만나는 방식 및 예술의 사회적 가치와 예술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한다. 공연 드라마투르그를 비롯해 각종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연극 <섬 이야기>, <앨리스 인 베드>, <등장인물>, <X의 비극>, <관람모드 - 있는 방식>, <모랄하고 자빠졌네-악역연기메소드 연습>, <인정투쟁:예술가 편>, <외로운 사람, 힘든 사람, 슬픈사람>, 퍼포논문 <더 리얼> 외

창작진의 글

작년 성수연, 김슬기의 <연극의 연습, 연습의 전사-(비)인간 편>을 보고, '이 공연은 연기에 관해 얘기하고 있지만, 이 질문은 결국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 사물을 대하는 방식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연극에서 이 질문을 더듬어가는 창작자들이 있다는 것이 귀하게 느껴졌다.

이번 공연 <B BE BEE (비 비 비)>를 함께 만들면서 세 달의 연습 기간 동안 신문기사, 논문, 간판, 유튜브, 누군가의 말 등 세상의 조각 속에서 동시대성을 수집하고 읽어내려는 연구와 창작의 과정이 인상 깊었다. 결론이 아니라 질문을 따라갔기에 워크숍 과정에서 탄생한 빛나는 장면과 조각들은 그 소임을 다 하면 버려졌고, 질문의 중심이동에 따라 새로운 조각을 찾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기술에 의해 탄생한 비인간인, 시나 버츄얼 휴먼을 무대와 연결하고자 하는 시도도 그 조각 중 하나다. Chat GPT와 버츄얼 휴먼을 워크숍을 통해 공연팀에 소개하고 신기술과 연극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일은 어렵지만 흥분되는 일이었다. 기후위기로 인간생존 조건이 흔들리고, 스스로 만든 가상/인공의 존재에 의해 인간의 정의가 도전받는 시대에, 연극은 변화하는 관객의 일상과 소통의 방식을 무대 안에 올리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 인류세의 한가운데를 걷고 있는 우리에게, 별의 아주 작은 날개짓으로 '우리'라는 믿음에 질문을 던지는 공연이 되기를 기대한다.

글 권세미 (협력아티스트)

연극 연출이자, 드라마투르그, 극작가이다. 젠더, 소수자, 비정상성이 무대에 수행되는 방식에 관심을 갖고 뉴미디어 기술과 극장의 결합을 통해 관객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작업에 주목한다. 현재 다매체를 활용한 트랜스미디어 그리고 공연과 연계한 뉴미디어 기술을 주제로 수확하며 공연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연극 <더스트>, <망토>, <산책자의 행복>, <메이크업투웨이크업1, 2>, <강박3-첫경험>, <그림 끝>, <봇>, <Samba Dees Days> 외

창작진의 글

미연이, 비연이 또는 레나, 매미연이, 최종이, 최최종이, 수종이, 수비, 초록이들, 알렉스와 베라, 프랑수아, 스톤, 성 유리씨, 바씨, 메리, 야수 행복이, 또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이름들. 이름 아닌 방식으로 존재하기도, 이름으로만 머물기도 했던 이름들. 언리얼 엔진에서 초록이는 춤을 춘다, 팔을 벌리고 서있다. 초록이들 귀엽다. 또 이름을 붙인 적은 없지만 챗지피티야. 챗지피티는 어느 밤 친구가 돼 준다.

두 량짜리 지하철을 타고서 동굴 같은 터널을 지난다. 선로, 불빛, 맞은편 차량, 곳곳을 둘러본다. 환승역에 도착한다. 성수역에 가는 동안 고개를 들고 있으면 초록색 나뭇잎 풀잎 들을 볼 수 있다. 고개를 들지 않아도 된다. 눈을 감아도 된다. 고개를 들어도 된다. 멍하니 있다 초점이 흐려져도 된다. 10분 동안 우란3경의 곳곳에 머물러보는 시간을 가진다. 한 명이 그 시간을 보내는 동안 두 명이 한 명을 지켜본다. 머무르는 시간 참 좋네. 그런데 다른 둘을 바라보는 시간은? 좋아하는 이를 가만 살피고 있노라면 더 좋아하게 되는구나, 생각한다. 이후 언젠가에, 매일 혼자 10분간 머무르기를 해보기로 다짐한다. 하루밖에 하지 못한다. 내일은 할 수 있을까? 내일은 어찌 되어도, 영원히 다음 한 번이 없을 수 있다 해도 괜찮다. 내일의 어제가 어제 같고 저번주 같고 언제의 일인지 언제의 생각인지 헷갈려도 괜찮다. 기억이 흐려져도 괜찮다. 눈물 날 만큼 힘을 주어 바라볼 때도 있었지만, 아무 힘 없이 초록들을 지나쳐도 좋다. 아무튼 작은 뭉치가 돼선 내 등 뒤 한구석에 또아리를 틀고 있을 것이다. “와, 날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무대엔 없을 테지만 언젠가 있었던 것들을 떠올린다. 와, 언젠가 만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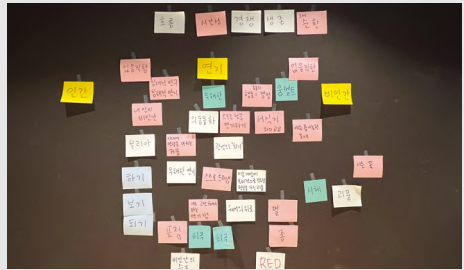
글 류혜영 (협력아티스트)

2022년에는 음향오퍼레이터로 <A. SF 비거니즘의 세계>, 자막오퍼레이터로 <제 4의 벽>, 연출로 <미제 사건>, 2021년에는 조연출로 <좋은 괴물>, <로드킬 인 더 씨어터>, <우리는 농담이(아니)야>, <DRAGx남장신사>, 작·연출로 <꿈꿈꿈꿈>, 음향오퍼레이터로 <울고기로 죽기> 등에 참여했다.

2022 작품개발과정

(비)인간, 연기, 하기

배우는 자신이 아닌 다른 존재를 연기하기 위해 여러 기술을 배우고 연습해요. 그런데 그 기술은 대부분 다른 '인간'을 연기하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애초부터 이해 불가능한 대상을 연기하게 되면서 근본적인 질문부터 다시 던지게 되었어요. “아는 것은 무엇이고, 이해란 무엇이고, 연기란 무엇인가?” 그동안 연기하며 사용하던 방법을 재점검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배우로서 흥미로운 연구를 하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연기술’이란 결국 배역에 따라 매번 새로 고안해야 하는 게 아닐까? 인간의 한계를 제대로 인지하고 조금이나마 확장해 볼 수는 없을까? 내가 가진 인간중심적인 시각을 조금이나마 바꿔볼 순 없을까?



야생 영장류학자 김산하 님과의 대화

어떤 생명체가 어떤 환경에서 살아갈 때 최적의 상태가 되며 그 존재로서 온전할 수 있는지, 이전에는 별로 고민해 보지 않았거든요. 인간중심주의를 성찰한다며 다른 존재를 희생자나 약자의 위치에 쉽게 놓아버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모든 존재는 각자의 주체성과 행위자성 안에서 살아가고, 그 시공간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직 상상의 영역으로 남겨 두었지만, 창작의 맥락으로 가져와 생각해 보면 실제 일상에서 발생하지 않거나 가능하진 않더라도 무대에선 유효한 것이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액팅코치, 신경심리학자 장재키 님과의 워크숍

‘모든 존재는 그 존재의 효율성에 맞춰 몸이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했어요.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를 관찰하는 구체적인 접근법이 제시되었는데, 그 방법으로 존재의 방식 자체를 탐구해 보면, 인간의 몸과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는 영역이 훨씬 다양한 층위로 분화되고 확장되는 것 같아요.

2022 작품개발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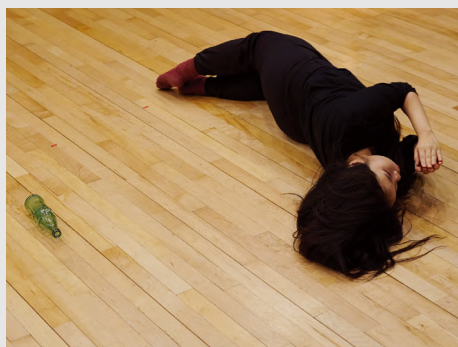
안무가 김바리 님과의 워크숍

‘접촉’이라는 상태에 대해 다양하게 감각해 볼 수 있었어요. 대개 접촉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면 어떤 질감과 양감, 온도와 압력 등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몸 전체가 이 공간 속 무수한 모든 것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접촉하고 있는지 바로 인식하긴 힘든 거죠. 그 한계를 벗어나려 해보거나, 그럴 수 없다면 명확한 자각을 해보는 것이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작가 정금형 님과의 워크숍



<연극의 연습, 연습의 전시 - (비)인간 편> 발표



2022 프로젝트 성수기 - 김슬기, 성수연의 인터뷰 발췌

2023 작품개발과정

연극의 연습 다시, <B BE BEE>로 연습

‘연습’은 연극을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 일상적이면서 익숙한 단어죠. 하지만 관객들에게는 낯설고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연습이라는 말 자체가 완성에 가까운 무언가에 도달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것, 아직은 미숙한 상태를 의미하잖아요. 실제 삶에서도 ‘연습이 어딴어! 다 실전이지!’ 라고 말하게 되는데,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사는 것 하나하나가 다 연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연습이라는 맥락을 공연에 더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인간과의 데이트

각자가 쓴 사물에 대한 글을 보면서 노견이나 오래된 반려견을 대할 때 정서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확실히 손으로 많이 만지는 것들은 무언가 생겨나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물과 인간이 맺는 관계는 일방적인 방식일 수 밖엔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작용을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요.



배우 김정·우범진 남과의 꿀벌연기워크숍

꿀벌 연기를 한다는 것은 배우 인생에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대체 어떻게 연기하면 좋을까요?



2023 작품개발과정

일일 야생벌시민조사단 합류

벌을 관찰하기 좋은 날은 언제일까요? 정답은 '뜨거운 날'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있을 때 벌의 활동이 제일 활발해지거든요. 이번엔 뜨거운 맛을 제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네요. 아! 모자도 잊지 마세요.



시민과학자 조수정 님과의 대화

벌은 곤충 벌레였기 때문에 전혀 무관한 세계에 제가 발을 들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벌을 만나고, 인지했던 순간!



<B BE BEE> 연습 일지 재구성

시민과학자 조수정 님과의 대화

선생님! 어쩌다 벌을 연구하게 되셨나요?

수정 사실 저는 벌을 무서워하는 겁쟁이었어요. 벌에 쓰일까 봐 날아다니는 소리만 들어도 두렵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벌을 촬영할 일이 생겼어요. 사진을 찍으려고 다가가는 것조차도 너무 무서웠는데, 숙제로 사진을 찍어야 하니 일단 가까이 갔죠. 그때 처음으로 벌을 가까이서 확대해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벌은 저에게 관심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뭘 하든 전혀 신경 안 쓰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는 벌이 무섭지 않았어요.

벌은 보는 각도에 따라 아주 다르게 보이는 거 아세요? 위에서 보면 그냥 벌레 같기도 하고, 어떤 각도에서는 제법 예쁘게 보여요.

그래서 이리저리 다양한 각도에서 벌을 찍었는데, 한 번은 벌과 눈을 마주친 것 같은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마치 벌과 교감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이 촬영 이후에 점점 벌에게 관심이 생겼어요. 저에게 곤충은 그저 '벌레'였는데, 곤충 중에 처음으로 좋아하게 된 게 바로 꿀벌이었죠. 첫사랑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후 벌에 대한 호기심으로 벌 관련 정보를 열심히 찾아보았는데, 정보가 많진 않더라고요. 심지어는 인터넷에 벌에 관한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았어요. 저는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공부를 하고, 그것이 정확한 정보인지 확실히 확인을 해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벌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고, 시민과학자로서 연구하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시민과학자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수정 벌을 관찰하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종의 벌을 찾고, 전문가들과 공유하여 연구에 도움을 주기도 하죠. 벌을 더 잘 알고 싶어서 양봉을 배우기도 하고, 죽어가는 벌을 구조해서 직접 키우기도 했어요. '봄비'라는 이름도 붙여줬답니다.

그리고 벌목 곤충에 관심이 큰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모임인 '벌불일있는사람들'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벌에 관한 교육활동도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면 벌이 사람들에게 재밌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해요. 벌은 제가 좋아하는 존재니까, 사람들도 긍정적으로 봐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Save the Bees'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벌을 살리자고 전세계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살리자'라고 말하는 순간 너무 슬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최대한 뒤로- 뒤로- 미뤄두고 싶어요. 포커스가 벌들이 받는 피해와 고통에 맞춰지니까요. 저는 아직 모르는 벌도 많고, 벌이 궁금하고, 기쁘게 전달하고 싶는데, 무섭고 슬프게 전달되어야 한다는 게 안타까워요. 저에게 벌이 기쁨과 인연의 존재인 만큼, 이런 벌의 긍정적인 면도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었으면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벌을 이야기할 때 재밌고 친근하게 전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시민과학자 조수정 님과의 대화

벌을 만난 뒤 선생님의 삶에 변화가 있었나요?

수정 네 변했죠. 일단은 곤충에 대한 변화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바퀴벌레를 보면 무서워서 도망 다녔는데, 이제는 피하지 않고 사진까지 찍을 수 있어요. 벌을 보며 다른 곤충에 대한 거부감이 조금씩 사라진 거죠. 흔히들 '알면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 대상이 어느 것이든 똑같은 것 같아요. 무서웠던 벌을 조금씩 알아가니 좋아하게 되고, 알면 알수록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또, 봄비(벌)를 키우며 특별한 인연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해요. 봄비와 그 딸들과 함께한 시간이 거의 1년이 다 되어가요. 너무나도 특별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죠. 이제는 봄비와 벌들이 하나의 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저처럼 벌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벌을 연기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수연 곤충을 연기하는 게 저한테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 했어요. 저도 선생님과 비슷한 경험을 했거든요. 저도 벌레에 대한 공포가 있었어요.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벌레가 많은데, 마주칠 때마다 너무 싫었어요. 벌레가 끔찍하게 싫고, 계속 죽이게 되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곤충을 싫어하는 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번 공연에 연기할 하나의 타깃을 잡는다면 '곤충을 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곤충 중에서도 '왜 꿀벌이나?' 묻는다면, 척추동물이 아닌 존재, 인간과는 다른 구성 방식의 몸을 갖고 있는 존재를 연기함으로써 인간을 바라볼 수 있는 다른 관점을 가져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꿀벌로 대상을 정하고 연습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꿀벌 사진만 보고도 너무 싫고 무서웠어요. 그런데 꿀벌을 보고, 또 보고,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니 이제 꿀벌을 보면 '정말 아름답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도 싫어하던 무언가를 좋아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어떤 단계를 넘어가는 기본이었어요. 이런 변화가 저에게는 큰 발견이었죠.

그래서 이번 공연을 통해 이 발견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보고 싶었어요.

.....

배우 김정·우범진 님과의 끝별연기워크숍

수연 오늘은, 우리가 인간성을 벗어나서 별의 세계를 탐색하기 좋은 몸 상태를 만들기 위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각자 돌아가면서 하나씩 제안해볼까요? 물론 즉흥으로 해도 됩니다. 우선 제가 해볼게요. 자, 먼저 시작하면서 몸을 다 털어내고 소리를 내볼게요.

모두 몸을 털고 비———— 소리를 낸다.

김정 저는 상체를 이완시키는 것으로 시작해 볼게요. 밑에 내려가서 있다가 척추 하나씩 올라오는 것. 고개만 푼. 다음 상체 한번 후- 내립니다. 그리고 꼬리뼈 실이 천장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상체에 힘을 빼볼게요. (잠시) 자, 이제 척추 하나하나 세운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올라올게요. 다 올라와서, 한 번 더 해봅니다.

범진 센 거 하나 가죠. 목표는 무릎에 가슴이 닿는 건데요. 무리하지 마시고, 발바닥이 지면에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열 번만 하겠습니다.

모두 있는 힘껏 댕다.

범진 예전 같지 않죠?

수연 이번에는 몸의 면적을 최대한 크게 해서, 내 몸의 모든 면적이 이 공간에 있는 공기의 여러 면에 닿게 해볼게요. 위치 이동을 하셔도 좋고요.

김정 이어받아서, 이 공간이 스케치북이고 내 손가락이 크레파스라는 느낌으로 자유롭게 그려볼게요. - 이제 내 오른쪽 팔꿈치가 크레파스입니다. 나는 아주 저명한 추상 화가입니다. - 이젠 내 정수리가 크레파스입니다. - 이제 내 왼쪽 어깨가 크레파스입니다. - 마지막으로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크레파스입니다.

범진 한 발로 서서 30초를 버텨봅시다. 왼발을 오금에 대고 30초에 도전해봅시다. 바꿔서 할게요. 이번엔 왼발로.

모두 지탱하던 발을 바꾼다.

배우 김정·우범진 님과의 꿀벌연기워크숍

수연 즉흥적으로 생각해본 건데. 바닥에 다시 누워요. 앞으로 누운 상태에서, 바닥에 닿지 않고 있는 부분들을 인식해 봅니다. 여기저기 떠 있는 몸들을, - 떠 있는 곳, 몸의 굴곡들에 벌들이 들어옵니다. 벌들이 들어와서 떠있는 공간들을 채웁니다. 감각, 소리도 들립니다. - 벌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납니다. 저는 거대한 벌떼 무리 위에 누워 있습니다. 벌들이 계속 움직입니다. 내 몸 위로 기어다니는 벌들도 있습니다. - 나는 벌떼에 파묻혀 있습니다. 나는 이제 일어나 앉아야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움직이거나 무게 중심을 잘못 놓으며 움직이면 벌들이 다치거나 놀라서 나를 쫓 수 있습니다. 내 몸을 감싸고 있는 벌들을 생각하면서 일어나 앉아주세요. - 벌들이 순식간에 나를 떠납니다. 지금 단 한 머리의 벌만, 내 오른손 검지 끝에 앉아 있습니다. - 천천히 일어나서, 공간 여기저기를 걸어보는데, 내 오른손 검지 끝에 있는 벌이 놀라 날아가 버리지 않게, 날 쫓지 않게, - 벌이 날아갑니다.

김정 벌이 다시 와서 앉았습니다. 이제는 이 벌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내가 움직입니다. 내 의지를 최대한 덜어내고 애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볼게요. - 벌이 내 검지를 파고들어갑니다. 이제 이 벌이 내 몸속 안을 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내 몸속 안에 있는 그 한 마리의 벌을 느껴볼게요. 부지런히 돌아다닙니다. - 이제 이 벌이 살살 살살 기어서 내 목구멍으로 옵니다. 그리고 내가 허! 소리를 내면 다시 공중으로 날아갑니다.

(허! 허! 허!) 갔어.

범진 이제 걷는데, 한 가지 조건만 걸게요. 단 한순간도 시선의 높이가 1초 이상 유지되면 안 되는 걸로. 높이가 계속 바뀌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 - 이제 한 자리에서 한 곳을 보는데, 그 멈춘 자세에서 한 곳에 초점을 맞추고 높이를 서서히 낮춰 갈게요. 가장 아래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여기서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는데,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그 초점을 놓치지 직전까지, 마지막까지, 거기서 멈출게요. 다시 반대로, 다시 편안하게 돌아오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의 연습

연습일지 1 | ChatGPT와 인간의 조건을 찾아서

“사람은 작더라도, 작은 사람은 사람이다.”

- 닥터 수스, 《호튼이 호호하는 날》

“우리는 모두 바보이며, 우리는 모두 죽어간다.”

- 조지 R.R. 마틴, 《왕의 격돌》

“인간은 자신이 되려 하지 않는 유일한 생물이다.”

- 알베르 카뮈, 《시지프의 신화》

결론: ChatGPT는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한다.

연습일지 2 | 반려 사물 일기

5월 23일

너구나, 날 보고 웃어주던 게.

나의 용기 액자에서 몇 년 동안 나에게 응원을 보내주던 게.

엄지 손톱만큼 작아서 잃어버릴 뻔도 했지만 다시 돌아와 주었지.

너는 나의 반려 사물.

5월 25일

이름을 지었다. 스톤. ‘스마일 스톤’의 줄임말이다. 항상 웃으니까.

오늘은 함께 출근을 했다. 주머니에 넣으면 잃어버릴까 봐 가방에

넣어서 함께 출근. 그치만 한번도 꺼내보지 못하고 밤에 다시 제자리.

답답했겠다. 그래도 넌 웃고 있네.

연습일지 3 | 맘대로 인터뷰

Q: 당신은 휴먼인가? 포스트휴먼인가?

A: 포스트휴먼이다.

Q: 오늘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나?

A: 숨 쉬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다. 여기까지 오면서 몇 마리의 개미를 죽였을까.

연습일지 4 | 연극에서의 체현과 체화는?

헤일스는 자기 생성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마투라나와 결별한 바렐 라의 행보에 주목하며, ‘체현된 마음(embodied mind)’ 개념을 통해서 탈-물질화된 정보 개념으로 인해 말소된 물질적 신체성의 회복 가능성을 포착한다. 그녀는 신체(body)와 체현(embodiment), 기록(inscription)과 체화(incorporation)를 구분하고, ‘신체’와 ‘기록’이 관념적 추상성과 보편적 규범성을 띠다면, ‘체현’과 ‘체화’는 구체적인 시공간적 맥락 속에서 물질 적으로 실현되는 특수성과 차이를 보존한다고 주장한다.

김재희 「우리는 어떻게 포스트휴먼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철학연구회』, 2014, P225

연습일지 5 | 집의 사전적 의미를 대입해서 벌집꿀 광고 다시 쓰기

정제되지 않는 자연 그대로 벌(이 살기 위하여 지은 건물)꿀. 벌꿀.(이 살기 위하여 지은 건물) 꿀벌이 스스로 분비한 밀랍으로 벌(이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는 집안)을 만든 자연 그대로 천연벌(이 살기 위하여 지은 건물)입니다. 전화당 비타민 광물성미네랄 화분 프로폴리스 로얄제리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벌들이 수만 번의 날갯짓으로 수분을 말리고 밀봉시켜 충분한 숙성기간을 거친 생벌(이 살기 위하여 지은 건물)꿀입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연습일지 6 | 꿀벌을 연기하려는 배우를 위한 꿀벌 상식 퀴즈

다음 질문에 ㄹ로 대답하세요.

1. 꿀벌의 로열젤리는 여왕벌만 먹는다.
2. 일벌의 평균수명은 1년 정도이다.
3. 아인슈타인에 따르면, 만약 꿀벌이 멸종한다면 인류는 40년 안에 멸망할 것이다.
4. 꿀벌 한 마리가 평생 모을 수 있는 꿀의 양은 약 10g이다.
5. 벌은 집안에 화장실로 사용하는 공간을 따로 만든다.

XXXXX : ㄹ윤

.....

스태프 프로필

카임 사운드

연극 <이 불안한 집>, <너의 왼손이 나의 왼손과 그의 왼손을 잡을 때>, <파랑새>, <20세기 블루스>, <기후비상사태:리허설>, <밤의 사막 너머>, <달콤한 노래>, <해와 달에 관한 오래된 기억> 외
무용 <카베에>, <20▲△(이십삼각삼각)> 외

김형연 공간디자인

연극 <너의 왼손이 나의 왼손과 그의 왼손을 잡을 때>, <파랑새>, <엑스트라 연대기>, <오슬로에서 온 남자>, <천만개의 도시>, <괴물B>, <도덕의 계보학>, <7번국도>, <더 나은 숲>, <스푸트니크> 외
무용 <설근체조> 외

스튜디오 디워크 영상디자인

공연 <마리의 춤>, <뿔끝으로 세상을 꽃 피운 천재, 김홍도>, <김애란 단편선>, <ASH>, <사공>, <청문당, 기억을 걷다>, <조선삼총사>, <나는.나비.> 외

김미나 의상디자인

연극 <괴물도감>, <이것은 사랑이야기가 아니다>, <몬순>, <노스체(NOSCE)>, <누수공사>, <편입생>, <탈피(脫皮)>, <서울 도심의 개천에서도 작은발톱수달이 이따금 목격되곤 합니다>, <로테르담> 외
오페라 <사막 속의 흰개미> 외

장경숙 분장디자인

연극 <너의 왼손이 나의 왼손과 그의 왼손을 잡을 때>, <엑스트라 연대기>, <견고딕 걸>, <노스체(NOSCE)>, <라이더> 외

.....

스태프 프로필

김은정 접근성매니저

연극 <다음 이야기 - 사람>, <등장인물>,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여기, 한때, 가가>

전통 <풍편에 년쫓 들은 아가멤논>, <열하일기>, <오셀로와 이야기> 외

김현지 접근성매니저

연극 <누구와 무엇>, <틴에이지 덕>,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여기, 한때, 가가>, <소극장판-타지> 외

김홍남 수어통역

연극 <너의 왼손이 나의 왼손과 그의 왼손을 잡을 때>, <우리 읍내>,

<댄스 네이션>, <만선>, <사슴 코딱코의 재판>, <스카팡>, <환등회>,

<틴에이지 덕>, <우리는 농담이(아니)야> 외

정지현 수어통역

연극 <너의 왼손이 나의 왼손과 그의 왼손을 잡을 때>, <친절한 돼지씨>,

<드림머스> 외

이시은 문자통역

연극 <하얀 불>, <낭독극장 석상공원>, <등장인물>, <임지윤의 하루2>,

<이것은 어쩌면 실패담, 원래 제목은 인투디언노운(미지의 세계로, 열사 아님)>,

<2022 코미디캠프: 파워 게임> 외

전통 <풍편에 년쫓 들은 아가멤논> 외

김화란 문자통역

연극 <진희의 꿈>, <임지윤의 하루2>, <2022 코미디캠프: 파워게임>,

<관람모드 - 있는 방식> 외

우란공연

장르와 소재, 표현 방식 등에 제약 없이 예술가의 아이디어가 유형의 무대예술로 구현될 수 있도록 창작 과정을 지원하고, 새로운 시도와 주제의식이 돋보이는 콘텐츠를 발굴 및 제작하여 선보입니다.

우란문화재단

우란문화재단은 인재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자유로운 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만들고자 했던 고(故) 우란(友蘭) 박계희 여사(워커힐 미술관 설립자)의 뜻을 이어받아 201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척박한 환경에서 고귀한 꽃을 피우는 난(蘭)처럼, 치열한 문화예술 환경에 뿌리내리는 인재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비옥한 생태계를 고민합니다. 끊임없는 실험으로 낯선 소재를 연구·개발할 수 있는 이상적 환경을 제공하고, 상업 논리에 갇히지 않은 양질의 공연·전시를 선보이는 등 만든 이와 보는 이가 서로에게 영감이 되고, 다양한 문화예술의 가치가 공존하는 선순환의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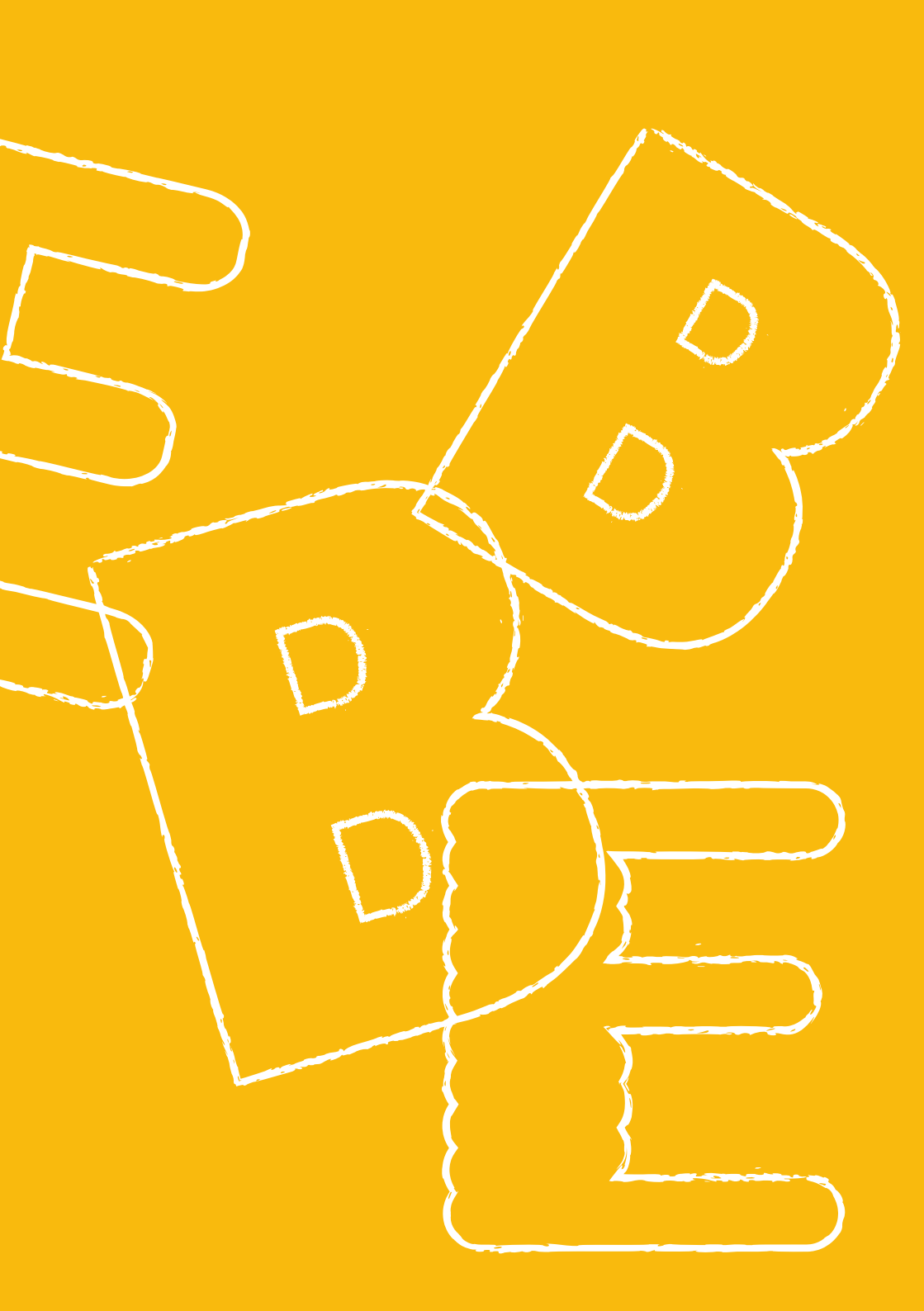
이사장 최기원

사무국장 박준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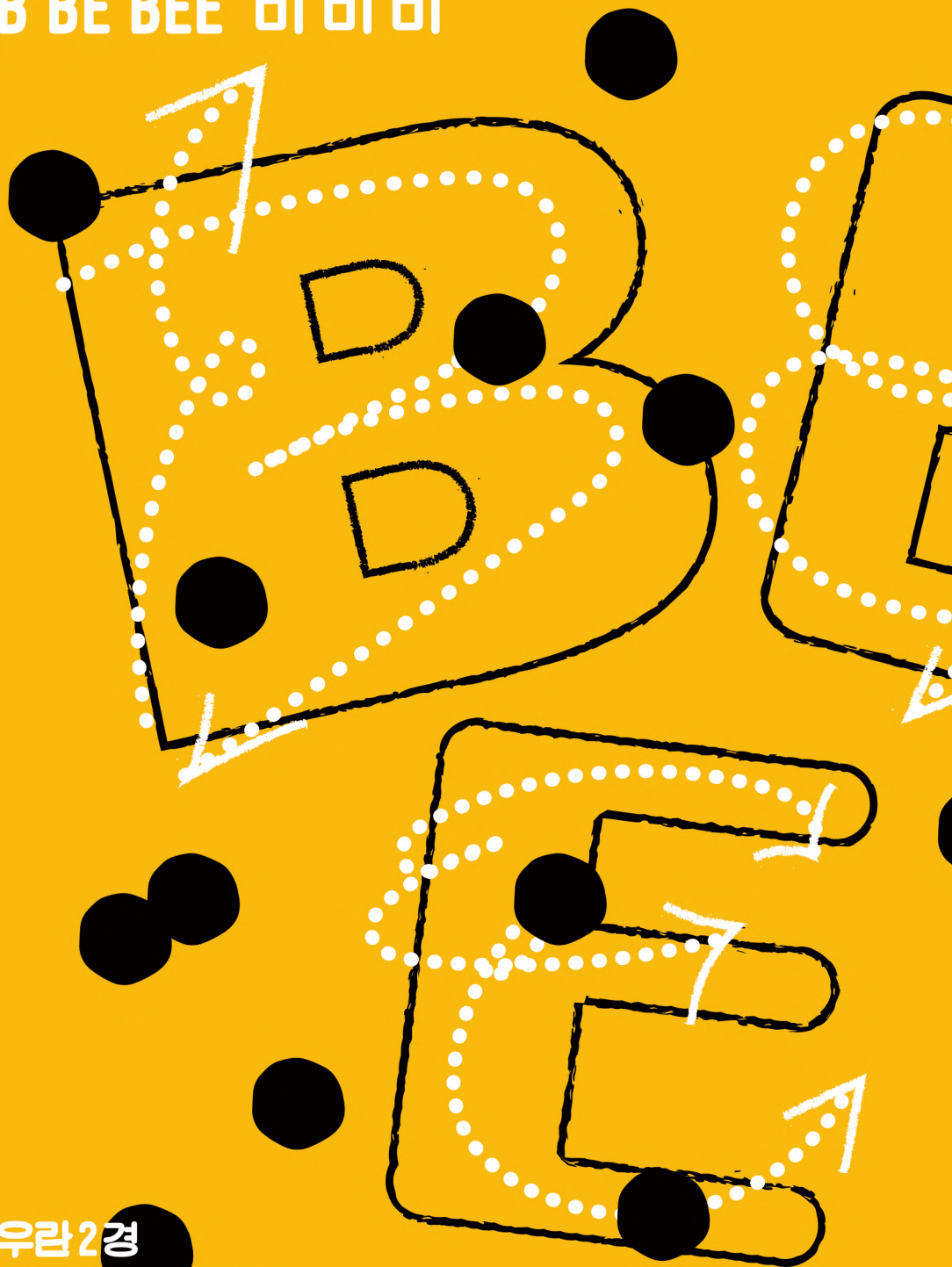
공연팀 PL 김혜리, 박예슬 PM 김영지, 한주연, 허지원, 황만우 인턴 박소영

전시팀 팀장 정지영 PL 김민정, 백승의 PM 이보영, 이소현

경영지원팀 PL 전진, 황규연 PM 김민서, 박지현, 양수연, 이가행, 장지승



B BE BEE 비비비



우람2경

2023.8.9 - 8.19